



“집착 내려놓으니 숨이 자유롭게 쉬어지더군요”

10년 만에 개인전 여는 주라영 작가

제13회 전시 29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130점 출품 암 투병 이후 시간 전반에 대한 성찰 삶 태도 변화 칼라 구사... 많이 비우고 내려놓게 되는 단계 설명

그의 화면은 순천연색의 칼라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안긴다. ‘왜 이처럼 칼라폭발한 화면에 호응을 했는가’는 그의 속을 안들어와 왔으니 알 수는 없다. 정황상 몇가지 단서를 추론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2년 전에 암이 발병했다.

다행히 초기여서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생명이 무엇인가’나 그 소중함 정도는 일깨우는 기회가 됐을 터다. 그의 화풍은 지금 시간이 불타오르는 듯하다. 그것은 생명의 경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보면 판아트를 보는 듯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 시연 혹은 곡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믿음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가 설치와 조각, 회화, 영상,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복합미술을 추구하면서 이런 칼라에 대한 색감 추구는 단순한 취향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 정도로 이해됐다. 그런데 그의 이력 조금만 들어가보면 쉽게 직감할 수 있다.

주인공은 인도에서 고대 벽화를 공부했고,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주라영 작가이다. 그는 정든 광주를 떠나 대전에서 이

세종에 머물며 5년째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간 작업했던 화풍을 고향 광주에서 풀었다.

암 투병 이후 그는 확실히 그림에 대한 시각이 변했다. 칼라가 증폭한 이면에는 암 진단 이후 세계의 장기 일부를 적출하는 등 충격이 컸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작품활동을 해오면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가진 듯하다.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다 비우고 내려놓았다. 부질없다”고 들려줬다. 삶 태도의 각성이 촉발된 것이다. ‘인간’을 주제로 많이 고민을 해온 작가였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같은 일이라는 소회를 들려줬다.

“세계 밥을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되고, 순환할 수 있게 몸에 에너지를 들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면 안되는 거



더라고요. 아니면 계속 누워 있게 되잖아요. 일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엔트로피 법칙(무질서, 즉 혼돈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도 생각했구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아파버렸고.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않나 다시금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타이틀을 ‘Life Is a Miracle’(삶은 기적)로 한 것이죠.”

그의 이번 주제는 ‘삶은 기적’이다. 2020년 소프라노 조수미가 냈던 디지털 싱글 제목이 ‘삶은 기적’이었다. 조수미는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작가가 말하는 ‘삶은 기적’의 의미는 절이 조금 다르다. 당사자가 친구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서다. 한때 경각으로 내몰렸던 자신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꼈을 복잡한 감정들이 더욱 더 단순한 생명에 대한 개념을 풀어놓은 계기가 됐을 법하다.

그 전에는 생존만을 위해 살았고 이 사회에 밥을 벌이고 살려 했던 것인데, 현재는 뇌가 각성이 됐다는 말로 대신한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시간들은 진짜 소중한 시간이 됐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뭔가 많이 비우고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깨우침 혹은 깨달음이 그의 화면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는 셈

이다.

“할떡거리며 살았다고 하면 현재는 호흡이 아주 느려졌죠. 이제 10가지 일이 생기면 한 가지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저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차 마시는 등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갖고 그러네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시간을 할애하고 또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미생활을 좀 하고요. 실제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매 순간이 감탄과 탄식, 생명에 대한 기적이라고 느끼죠. 완전 삶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숨을 자유롭게 쉴 수가 있고 이제 집착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삶의 태도가 변하면서 그는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색깔을 찾아 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짝으로 은근하게 드러나는 느낌들을 잡아가고 있다. 사람들의 삶 역시 강렬한 이미지가 있지만 없는 듯, 없는 듯 공기같은 사람들이 부지수라는 점에서 하나의 개념을 얻은 듯하다. 그러면서 굴곡을 통해 시각적 충격을 추구하고 있다. 기령 굴곡에다 검정색을 발라 더 깊어져 보이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그의 개인전은 각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저 헛수만 더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성찰을 화폭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체적 분위기가 툭이 우울하고 진지한 것만은 아니다. 한 마디로 화폭에서만큼은 ‘경쾌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제13회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2일 개막, 29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계속된다. 출품작은 130여점.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사라진다II’

춤·내레이션·영상 입힌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립발레단 살롱콘서트 27~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발레단은 올해 첫 기획공연으로 화려한 봄에 어울리는 ‘발레살롱콘서트 I’을 선보인다.

몸으로 펼치는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무대는 발레와 내레이션, 영상에 어우러진 색다른 형식으로, 클래식 발레를 한 권의 책을 읽듯 작품 전체를 압축·재구성해 인터미션 없이 연출해 눈길을 끈다.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가 원작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고전 발레 작품으로, 차이콥스키의 서정적이고 화려한 음악과 함께 클래식 발레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선과 악의 대비, 사랑과 희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은 이 작품은 시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요정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 오로라 공주가 마녀의 저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왕자의 키스로 다시 깨어난다는 내용이다. 순수한 사랑이 저주를 깨뜨린다는 이야기 속에서 무용수들은 섬세한 동작과 감정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서사를 풀어내며, 관객을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과 함께 더해지는 내레이션, 영상 배경과 인물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무용수들의 몸짓이 하나의 동화처럼 이어지도록 돕는다.



여기에 영상 연출을 활용해 장면 전환과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완, 발레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작품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예정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이번 발레살롱콘서트를 통해 클래식 발레의 문턱을 낮추고,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관객 모두 발레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가족 단위 관객에게는 ‘이야기로 만나는 발레’, ‘몸으로 읽는 동화’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에서 26일 오후 2시 광주예술의전당 유료회원 선예매, 27일 오후 2시 일반예매 순으로 이뤄진다.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28일 오후 3~7시에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6세 이상(2020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이면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비엔나에서 보헤미아까지 실내악 여정 떠난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27일 21문화재단 예술극장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와 드보르작의 음악을 피아노 사중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2026년 체임버 시리즈의 첫 무대인 ‘From Vienna to Bohemia’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단원인 바이올린 강다영, 비올라 조수영, 첼로 나유빈과 피아노 김성재가 출연해 피아노 사중주 편성으로 실내악 특유의 섬세한 호흡과 깊이 있는 앙상블을 들려줄 예정이다.

‘From Vienna to Bohemia’는 비엔나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와 보헤미아 출신 작곡가 드보르작의 작품을 통해 두 지역의 음악 여정을 조명한다.

피아노와 현악기가 어우러지는 피아노 사중주 편성 안에서 고전주의의 균형 잡힌 형식미와 보헤미아 음악의 서정성이 대비를 이루며 실내악의 깊이 있는 매력을 전한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 2번 E♭장조 K.493’이다. 이 작품은 피아노와 현악기가 균형 있게 결합된 고전주의 실내악의 대표작으로, 밝고 우아한 선율과 정제된 구조가 돋보인다. 각 악기의 개성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긴밀한 호흡과 조화가 이어지



감을 받는다.

풍부한 선율과 생동감 있는 리듬이 특징이다. 낭만주의적 감성과 활력 있는 전개가 어우러지며 피아노와 현악기가 만들어 내는 다채로운 음향 속에서 작품의 역동성과 서정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비엔나 고전주의의 균형미와 보헤미아 음악의 따뜻한 정서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으로 관객들은 실내악만의 깊이 있는 울림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 ‘From Vienna to Bohemia’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지역 문화 기록할 서포터즈 찾아요”

4월 2일까지 13개 시·군 26명 모집

전남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향유 확산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2일까지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서포터즈 ‘수요연사’를 모집한다.

‘수요연사’는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보다 지역에 밀착하기 위한 서포터즈를 의미한다.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페스티벌 사업은 월 1회에서 올해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돼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는 ‘수요일의 문화’를 상징한다. 특히 ‘수요일의 문화우체국’이라는 사업 콘셉트와 연계해 지역 곳곳의 문화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고 있다.

이번 서포터즈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참여하는 전남 13개 시·군(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완도, 장성, 장흥, 해남)을 대상으로 총 26명을 선발하며, 각 지역별 2명씩 배치돼 문화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된 지역 문화행사에 참여해 현장 취재를 진행하고, 사진·영상·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제2공공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문화 기록자’로서 지역 문화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은 문화·예술, 지역 활동에 관심이 있고 SNS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타 지역 거주자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증명서가 함께 제공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